

TV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마당을 나온 암탉’ 첫주 33만명 ‘로버트 태권V’ 기록 넘어설까

다음주 국내 애니메이션 최다 관객 신기록 세울 듯

오성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 한국 애니메이션 최다 관객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을 끈다. ‘마당을...’은 한국 애니메이션으로는 개봉 첫 주 최고 성적을 거뒀고 제작사인 명필름 측은 이런 성적에 고무돼 ‘마당을...’이 부진의 긴 터널에서 헤매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도약에 밑거름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마당을 나온 암탉’은 지난달 27일 개봉된 이래로 5일간 33만5천여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 이는 지금까지 개봉된 한국 애니메이션 가운데 개봉 첫 주 최고 성적이다. 역대 1위는 약 22만5천명을 동원한 김창기 감독의 2007년 디지털판 ‘로버트 태

권V’(2007)다. 특히 ‘고지전’ ‘픽’ 등 100억원대 제작비를 투입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와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종판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 등과 경쟁한 결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평일 6만~7만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 중인 ‘마당을...’은 이 같은 기세를 유지할 경우 이번 주 안에 50만명을 돌파하고, 다음 주 초 국내 애니메이션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한 애니메이션은 디지털로 재개봉된 김창기 감독의 ‘로버트 태권V’로, 전국에서 72만명 끌어모았다. 명필름 마케팅실의 심명희 실장은 “다음 주 초쯤 기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영관 상



황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오랜 부진을 털고자 제작된 작품이다. 제작 기간만 6년이 걸렸다. ‘접속’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제작한 명가 ‘명필름’이 공동제작에 참여했다. 관객과 평단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평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순제작비만 30억원,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50억원이 든 이 애니메이션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150만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심 실장은 “대부분 낮 시간대에만 상영되는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는 좋은 성적”이라며 “겨울시즌대까지 영화 상영시간을 확대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제20회 광주·전남 직경비둑대회. 타이른 난전 1회전 2국 2보(13~31).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the tourna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일(음 7월 3일 己丑). 운세 forecast for various zodiac sig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for EBS channels.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어, 오하오우 니혼고.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ntent.